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



일시 2026년 8월 11일(화) 14:00-17:00

장소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 3층 블리스 대연회장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그랜드오스티엄 내)

주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국민참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입시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김동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AI 대전환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암기력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탐구정신과 호기심,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창의력,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대입제도로 충분한가?”

둘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입니다.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모이면 더 좋은 교육을 위한 통찰과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말씀을 참고하여 2028~2037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모두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국가교육위원장 차 정 인

AI가 답하는 시대, 학교는 ‘살아 있는 탐구자’를 길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뜻깊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호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생성형 AI의 확산과 학생평가 및 대입제도의 변화라는 큰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보다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입니다.

미래교육이 길러야 할 인간상을 '살아 있는 탐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탐구자는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며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AI는 탐색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질문을 대신하거나 최종 판단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인천교육은 이를 위해 읽견쓰AI를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읽기로 세상을 이해하고, 걷기로 삶을 경험하며, 쓰기로 생각을 표현하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Human-AI-Human(H-A-H) 원리에 따라 사람이 먼저 질문하고 AI로 탐색한 뒤 다시 사람이 성찰과 검증을 거쳐 책임 있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가는 암기보다 질문하는 힘과 탐구 과정, 사고력과 표현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고, 학교는 모든 학생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AI 기술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시민을 얼마나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천교육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각의 주도권을 지키며 살아 있는 탐구자로 성장하도록 읽견쓰AI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